

# “질병관리청 승격, 우리 감염병 대응체계 획기적 진전”

### 문재인 대통령 “일본, 세계 모범된 K-방역 이끌어” “위기대응~예방 촘촘한 대응망...지자체와도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수석·보좌관들만 참석했으며 장관들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

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

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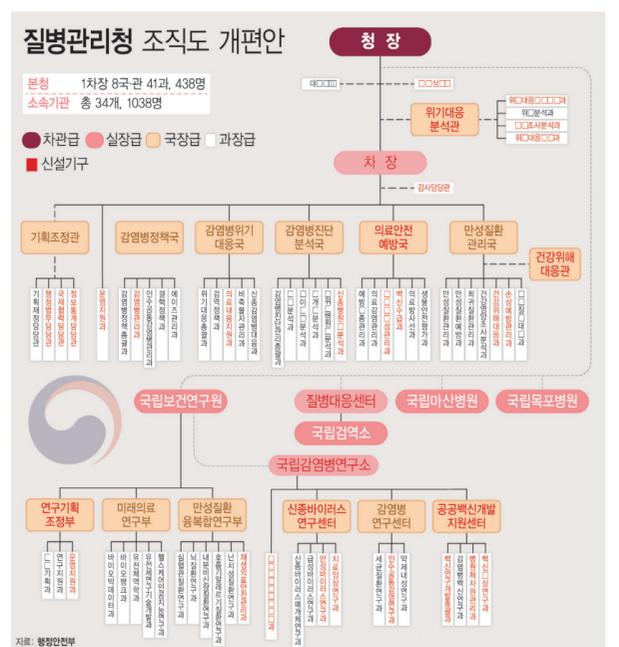
리의 공공보건역량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역량 인력의 처우개선 가능성도 보장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며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역량 산업을 기르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역량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며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역량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의정협의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



론도 폭넓게 수렴하여,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

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 기자

## 주호영, 이낙연엔 “옳으신 말씀” 추미애엔 “대단히 잘못”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참으로 옳으신 말씀”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호평한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행태가 기가 막히다”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가 대단히 잘못”이라고 혹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날 이 대표의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이 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하자” “우분투(ubuntu)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호평하면서도 “빠 있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어진 발언에서 “그런데 통

이낙연 ‘우분투’ 등 언급하며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 “추미애 장관 행태 기가 막혀...특임검사 수사 자청해야” “文대통령, 추미애에게 제대로 수사하라고 명령해달라”

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할 때 추천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왜 북한인권대사를 3년 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이낙연 대표께서 명확히 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이들의 군 휴가와 관련된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힌다.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됐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

건인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추 장관은 ‘소셜 스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런 법원과 검찰의 일탈과 파행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공정 사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범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고 했다.

그는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범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이라며 “국회의 본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176석의 거대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릇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 있다. 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결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은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에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이재명, 시도지사 지지도 3개월 연속 1위

긍정평가 0.7%p ↑ 69.1%  
전남 김영록 3개월째 2위  
3위 이용섭 광주시장 57.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15개 시도지사 8월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또다시 1위를 차지했다.

8일 리얼미터 월간 정례 광역자치단체(서울·부산시장 제외) 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지사의 지지율은 전달보다 0.7%p 오른 69.1%로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조사에서 71.2%의 지지율을 얻으며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이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다.

올해 5월까지 13개월 연속 1위였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개월째 2위를 차지했다. 전달보다 1.5%p 상승한 66.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1위와의 격차도 3.0%p에서 2.2%p로 소폭 좁혀졌다.

3위는 57.1%의 지지율을 기록한 이용섭 광주시장이 차지했다. 그리고 이

철우 경북도지사(56.0%), 최문순 강원도지사(51.6%), 이시종 충북도지사(50.8%), 송하진 전북도지사(50.6%) 등이 뒤를 이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달보다 지지율이 1.5%p 감소, 47.9%를 기록하며 7위에서 8위로 떨어졌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달보다 지지율이 0.4%p 오른 46.0%를 기록했으나 순위는 한 계단 떨어지며 10위에 자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38.5%), 박남춘 인천시장(37.9%), 송철호 울산시장(35.1%)은 13~15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